구조조정 회사 유암코 제역할하나?

대상 확대 등으로 긍정적 시선 속 실적 의식 쉬운 기업만 고르려 해 인수 성과 미미 평가도

기업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지난해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재출범한 유암코(연합자산관리)의 역할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출범 7개월이 지난 현재 유암코가 부실채권 및 주식 인수에 뛰어들면서 시장의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반면, 정체성과 업무영역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회의적 시각도 존재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유암코는 선박용 기계 제조업체인 오리엔탈정공의 채권인수를 마무리짓고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또 영광스텐과 넥스콘테크놀로지의 채권단과 채권인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부건설 인수를 놓고 사모펀드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와 막판까지 경합을 벌이기도 했다.

부실채권 관리회사였던 유암코는 은행 8곳의 출자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로 재탄생했다.

유암코는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를 설립해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특정 기업의 채권과 주식을 사들인 뒤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중소 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 부실기업이 늘며 유암코도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금까지는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매출 1000억~1500억원 내외의 중견

IT는 VR중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월드IT쇼 2016이 개막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관람객이 LG VR체험을 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에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매출 5000억원이 넘는 대기업, 워크아웃 전의 중소기업, 회생기업의 정상화 지원 등에도 참여한다.

유암코는 또 기업은행과 50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펀드를 만들어 자율협약 등 워크아웃 이전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긍정적인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실기업을 인수하려면 채권은행들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유암코가 이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통보한다거나 효과가 크지 않은 '편한' 기업만 고르려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유암코는 악성 부실기업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구조조정 전문회사로서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초기 성과를 의식한 탓인지 채권은행들이 넘길 이유가 전혀 없는 다루기 쉬운 기업들만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암코가 출범 후 지금까지 채권인수를 마무리지은 부실기업이 단 한 곳에 불과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유암코가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기업들은 모두 산은이 주채권은행인 업체로만 채워졌다.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안진수 기자

전자업체 손목용 신제품 개발 경쟁 가열

올해 1분기 스마트워치 출하
지난해 4분기의 절반 그쳤으나
태블릿 PC 점차 하락세 따라
수요 증가 점치며 돌파구 찾아
삼성 '기어핏2' 출시 예정
손등 이용 미래기술 특허 출원

삼성전자 등 전자기기 업체들이 손목 시장 확보에 전력을 쏟고 있다. 스마트 워치와 밴드 등 손목용 신제품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세대 스마트워치들이 시장에서 외면을 받았지만 향후 스마트 폰 시장을 이끌어나갈 주력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1분기 스마트워치 출하량이 420만여대로 지난해 4분기(810만대)에 비해 절반에 그쳤다고 밝혔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현재 과포화된 스마트폰 시장 안에서 가장 각광받는 돌파구로 꼽히고 있으나 정작 그 대표주자인 스마트워치에 대한 시장 반응은 아직 차갑다.

애플이 애플워치를 내놓으며 시장이 가능성을 보이는 듯 했지만 신제품 '특수'가 너무 일찍 종료됐다.

소비자들이 스마트워치를 외면하는 주요 이유는 "화면이 작아 답장을 하기 힘들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과 떨어져 있으면 무용지물이다" 등이다.

하지만 여전히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업체들의 기대는 크다. 스마트폰을 보조할 '세컨드 디바이스'로서 태블릿PC가 점차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손목용 제품의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갤럭시 기어

각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우선 스마트밴드 시장이 약진을 하고 있다.

현재 출시되는 스마트밴드들은 디스플레이 기능을 대폭 줄이고 대신 GPS 추적과 심장박동수 체크 등 건강 기능에 중점을 뒀다. 문자를 보거나 전화 기능은 없어졌지만 대신에 가격과 무게가 확 가벼워졌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다음달 스마트밴드 '기어핏2'를 출시할 예정이다. 전작 출시 후 2년 만이다.

현재 스마트밴드 시장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샤오미와 전문 기업 핏빗 등이 강세를 이루고 있다. 삼성의 본격 진출에 경쟁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애플 또한 스마트밴드 사업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하반기에 스마트워치 신제품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시장 성장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래를 대비한 기술 경쟁도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기술들이 실제로 개발되고 또 특허로 출원되고 있다.

최근 미국 IT매체들은 손등 피부에 전자파를 투사해 직접 스마트 워치를 조작할 수 있는 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연일 보도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손등에 홀로그램을 쏴 피부 자체를 디스플레이로 사용하는 기술을 특허 출원했다. /안진수 기자

딸의 안전운전 아빠가 응원한다

현대차 드라이빙 투어 6월 2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대한민국 아빠와 딸들을 위한 현대자동차의 '아빠&딸 드라이빙 투어' 데이트 제안!"

현대자동차㈜가 아빠와 딸을 위한 '현대 드라이빙 클래스 아빠 & 딸 드라이빙 투어'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현대 드라이빙 클래스 아빠 & 딸 드라이빙 투어'(이하 '현대 드라이빙 클래스')는 현대자동차가 2012년부터 여성 운전자들의 운전기술 향상과 건전한 자동차 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해 온 드라이빙 클래스 이벤트로, 올해는 '아빠와 딸'이라는 색다른 테마로 부녀 간의 돈독한 정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현대 드라이빙 클래스'는 오는 6월 11일(토)에 미시리 조정경기장(경기도 하남시 소재)에서 참가 신청을 통해 선정된 아빠와 딸 80명을 초청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아빠가 직접 딸에게 운전 노하우를 가르치는 테마로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대처 교육, 기본 주행 방법, 안전 운전 및 주차 방법 등의 일상 주행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운전 이론 교육을 이수한 후, 장애물이 설치된 랠리에서 실전 운전 연습을 하게 된다.

또한 미시리 조정 경기장부터 경기도 양평까지 이날 배운 운전 방법을 바탕으로 딸이 운전해 아빠와 교외 드라이브를 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해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6월 2일까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www.hyundai.com)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 고객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게시 및 전화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P2P업계 상위 20곳, 누적대출 1100억원 돌파

국내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의 누적대출액이 1100억원을 넘어섰다.

17일 P2P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위 20개 업체의 대출이 2015년 351억원에서 올해 5개월만에 749억원을 기록하며 누적금액 1100억원을 돌파했다.

8퍼센트의 누적대출 및 점유율이 216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고 ▲테라펀딩 197억(17.9%) ▲빌리 139억2700만원(12.6%) ▲렌딧 133억원(12%) 등이 뒤를 이었다.

상위업체들은 P2P 시장 초기 개인신용 분야에 집중한 것과 달리 다양한 대출 상품 취급을 통해 P2P 시장의 저변을 넓혀혔다.

P2P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로 대부업에 속했던 P2P업계의 법적규제 완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참고인이라더니 빚 떠안겨"

금감원, 미등록 대부업체 연대보증 사기 피해 51건 접수

단순한 참고인이라고 속인 뒤 사실상 연대보증의무를 부담시키는 미등록 대부업체 사기가 잇따라 발생해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연대보증 사기 피해는 51건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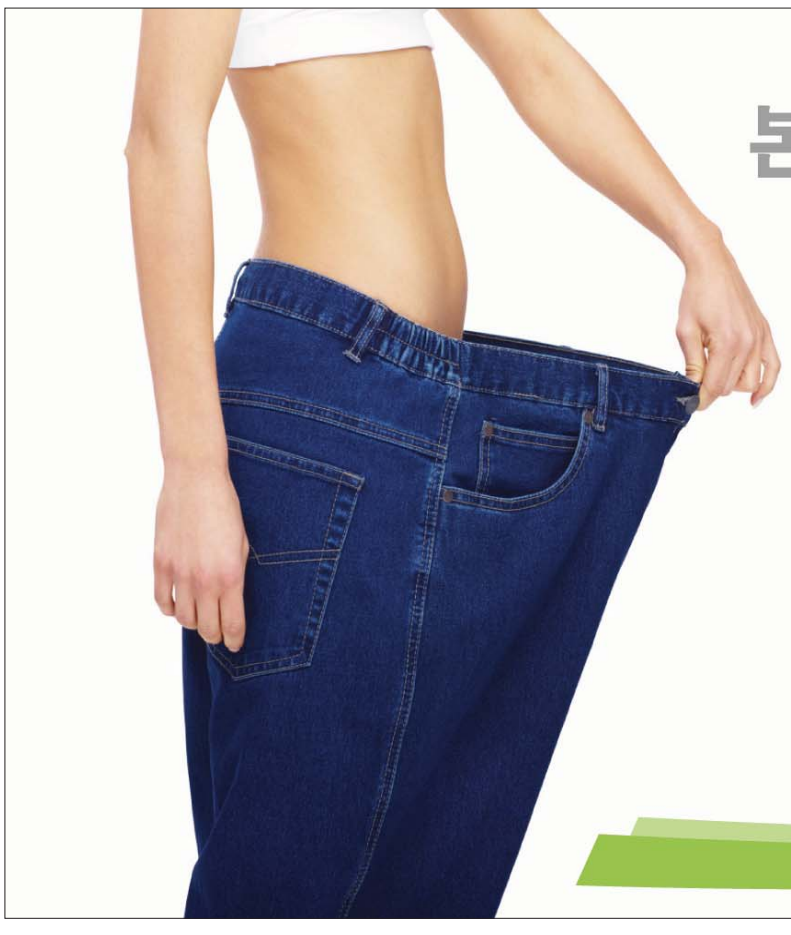
사례 조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체는 가족 등 채무자 관계인에게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며 대출절차에 동의할 것을 유도했다.

또 연대보증인으로 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된다며 안심시켰다.

피해자 중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체 한곳에만 참고인으로 동의했으나, 본인도 모르게 3~4개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인으로 돼 있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과 관련된 참고인 등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본인도 통화내용을 녹음해 둘 필요가 있다"며 "향후 연대보증의무 이행 요구를 받거나 대출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에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안진수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